

□ 동부동

*망정동

나지막하게 뻗어있는 마현산 동북쪽 자락 분지에 위치한 부락이다. 지금은 공업단지가 들어서 광활한 평지로 변모해 있으나 옛날에는 사방으로 작은 산들로 쌓여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예부터 못을 막아 비교적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가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높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정자의 기능이 풍류를 즐기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영천성의 외곽지여서 적들의 침범을 경계하는 감시 기능을 하던 정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망정이라고 불렀다 한다.

*신기동

신기동은 3개의 자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맛대배기, 금당골, 하신기 등이다. 맛대배기는 경상도 방언으로 마을 첫째라는 뜻이고 대배기는 정상이라는 의미이다. 즉 최정상의 마을, 이를테면 윗마을이라는 뜻이다. 금당골은 옛날 금이 생산되었다는 연유로 지어진 명칭이고, 하신기는 글자 그대로 아랫마을이란 뜻이다. 행정체제가 구성되면서 언하동에 할애한 일부를 제외하고 하천면(河川面)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개편 때 신설된 임고면에 속하였다.

*야사동

영천의 옛 명칭이 절야화군(切也火郡)이다. 그러므로 절야화군과 야사(也史)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강 건너편의 금강산성(金剛山城)은 신라시대의 성이고 보니 이 지역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라 믿어진다. 이 동네는 보목골, 화지대골, 죽은나무골, 분통골등의 속칭으로 불리었는데 보목골은 일명 버들골이라고 부르며 버드나무 숲이 무성하여 지칭하였다고 하며, 화지대골은 화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불린 이름이라 전한다. 그리고 죽은나무골은 원래는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었는데 어느해 3년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었다고 전해진 명칭이며, 분통골은 농사를 원만히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막았으나 장마철만 되면 못둑이 무너져 주민들이 화가 치밀어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언하동

언하동은 보현산에서 발원된 자호천이 남으로 흘러 내리면서 영천시 경계지점에서 제법 발달된 하천 연안 평야를 이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으며, 서쪽은 작은 산야가 그림처럼 마을 뒤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역시 일직선으로 평야와 산세가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북쪽으로는 영천시 임고면의 경계지점이고 남쪽은 영천-포항간의 국도를 경계로 조교동과 구별된다. 또 동쪽은 평야 끝 부분의 자호천이 고경면 단포동과 구별하고, 서쪽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망정과 구별되어 있다. 죽배, 원지(原地), 세미 등이 언하동의 자연지역 명칭이다. 죽배는 배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붙여진 명칭이고, 원지는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편(片)씨가 살던 지역으로 그 후손들이 원적이란 뜻으로 부르던 것이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또 세미는 일명 천미라고도 하는데 우물이 마르지 않고 물 맛이 좋다는 뜻에서 기인된 이름이다.

*조교동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자호천과 동쪽에서 흘러 오는 고경천이 합류한 지점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과 서쪽으로 질편한 장천평야가 멀리 이어져 있고 동남쪽 강 건너 편에는 수 많은 전설

을 간직한 금강산이 병풍처럼 배경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역사에 관해서는 정확한 문헌이나 유적은 없고 다만 구전에 의하면 삼국시대 부터 동네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위의 부락에 관한 야사(野史)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옛날부터 영천문화의 핵심을 이룬 주변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곳에는 조흔달, 장천 등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조흔달은 이 동네와 강 건너편 완산동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주민들이 좋아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장천은 옛날 부근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여 생긴 이름이라 한다. 1914년 대동면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면 통합령에 의하여 영천면에 소속되었다. 그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구성된 동부동에 속하였다.